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이든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든, 풀이로 이르는 그 외형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제 운명의 8할이 '선택'의 운명을 지닌 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 자신의 디자인이 책 선택에 있어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바라는 북디자이너가 있다. 작가정신 북디자이너 송윤형(25) 씨가 바로 그다.

“보기에 그럴 듯한 책이 읽기에도 그럴 듯한 법은 없습니다. 책이 가진 성품, 곧 그 내용이 과잉된 디자인으로 가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이보다 어울리는 디자인은 없겠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평가는 없을 겁니다. 북디자인을 시작하고 이제 겨우 2년이에요. 좋은 북디자이너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는데, 신출내기 북디자이너로서 서툰 듯하지만 지켜가고 싶은 고집입니다.”

텍스트의 영역을 침범치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 디자인이 책 선택에 있어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그러나 그가 디자인한 책을 관심 있게 지켜본 이라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철학이 얼마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단편소설선 《옛우물에서의 은어 낚시》(이남호 엮음 2003)를 보면 작가 22인의 이름과 작품 제목이 책의 가장자리를 빼곡히 차지하고 있는데, 작가의 이름에 명도를 높여 우물물의 일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글꼴 서체의 자소를 변형해 완성시킨 책 제목은 실박한 은어의 생동감을 살려낸 포인트로서 손색이 없다. 《토도의 눈물》(구로야 나기 테츠코 2002)에서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네 번의 붓놀림으로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슬픔을 드러내는가 하면, 《파바로티와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제인 로젠버그 2003)에서는 부록 CD를 전면에 내세우는 과감함도 내보인다.

“자기세계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오랜 연륜만이 해결해 줄 문제겠지만, 성급히 한 세계를 갖추려고 안달복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며 느끼는 북디자인의 매력도 크거든요. 《옛우물에서의 은어낚시》를 작업할 때, 제목 서체로 잘 쓰지 않는 글꼴 서체를 써보았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서점에 나가 보면 글꼴 서체를 제목으로 쓴 책들이 곧



잘 눈에 띄지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제 디자인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면 단순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지나치게 승해지는 걸 억누르겠다는 의의이기도 한데, 컬러도 쓸 것만 갖추어 쓰고 일러스트도 상징화시켜 단순화시키는 편입니다.”

최근 그는 일본 미치코 황후의 기조 강연 ‘어린이 책을 통한 평화- 어린 시절의 독서 추억’을 수록한 책 《다리를 놓으며》(미치코 황후 2003)를 작업하며 아뜩하고도 짜릿한 경험을 동시에 가져보았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5개국에서 동시 발간이 예정된 책은 원서표지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나 작가정신이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본 출판사 스에모리북스의 실수였다. 저간의 사정을 알리 없는 송윤형 씨는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핀 뒤 나무에서 아이들이 탄생하는 독특한 일러스트를 그려 북디자인을 마무리했다. 스에모리북스로 가제본이 보내졌는데, 왜 원서표지를 사용하지 않았냐는 추궁이 바로 돌아왔다. 공 들인 디자인이 사라질 순간이었다. 직접 그린 일러스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도 흡족했던 디자인이라 아쉬움은 더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잠시, 스에모리북스는 특별히 한국에서만은 달리 출판해도 되겠다는 허락을 했다. 《다리를 놓으며》 한국어판 북디자인이 미치코 황후를 감동케 한 까닭이다.

그는 아동물과 에세이를 디자인하는 일이 자신의 정서에 잘 맞다고 한다.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학은 그 작업이 더딘 편이라 많은 책을 읽으며 안목을 키울 일이라 한다. 상상력을 자유롭게 개진시키고 구체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동물은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보고 싶은 작업이다. 아동물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는 최근 ‘어린이 작가정신’ BI를 완성했다. 앙증맞은 청개구리 얼굴을 확대한 ‘어린이 작가정신’ BI는 작가정신 박진숙 사장이 인정하고 강력 추천하는 ‘작품’이다. ‘아이생각’, ‘미술피리’ 등 제각각의 이름을 갖고 출판되던 작가정신 아동물이 BI 완성과 함께 ‘어린이 작가정신’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앙증맞은 청개구리 얼굴을 확대한 ‘어린이 작가정신’ BI는 작가정신 박진숙 사장이 인정하고 강력 추천하는 ‘작품’이다. ‘아이생각’, ‘미술피리’ 등 제각각의 이름을 갖고 출판되던 작가정신 아동물이 BI 완성과 함께 ‘어린이 작가정신’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북디자이너를 하기 전의 일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월요일 날 흰옷을 입고 출근해 목요일날 회색옷으로 퇴근하는 날이 계속되었지요. 몸이 지쳐가고 타성에 젖으면서 디자이너가 아니라 평범한 사무원으로 살고 있는 제가 보이더군요.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모범이 될 만한 외국 서적이나 뒤적이는 저를 보며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불현듯 부끄러워졌어요. 간단히 그때의 일을 접었습니다. 북디자이너의 길은 전의를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한 일입니다.”

> ……그에게 《토토의 눈물》 북디자인이 처음 맡겨졌다. 작업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몰입했고, 몇 개의 시안을 함께 작업한 끝에 첫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북디자이너의 길도 그러했겠지만, 노련한 북디자인 실력도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패키지 회사, 폰트 회사, 신문사 등을 거쳐 다채로운 디자인 세계를 경험했던 그는 북디자이너 초기 시절 본문작업만을 맡아 해야 했다. 북디자인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한 달 반 편집작업에 여념 없던 그에게 《토토의 눈물》 북디자인이 처음 맡겨졌다. 작업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몰입했고, 몇 개의 시안을 함께 작업한 끝에 첫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기회를 보다 작업한 작품이니만큼, 《토토의 눈물》은 책 제목을 제쳐놓고라도 그에게 눈물겨운 한 권의 책이다.

> 송윤형 씨가 취재당시 디자인을 마무리 짓던 책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사실 이 책은 완성본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송윤형 씨는 오랜만에 흡족할 만한 디자인을 완성했다며, 다른 책 위에 시안을 덧입혀 가져왔다. 북디자인에 대한 그의 열정이 마냥 부러웠다.

그는 북디자인을 시작하고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되는데 <출판저널>과 인터뷰를 하는 일이 부끄럽다며 거듭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 연륜은 짧아도 책에 대한 마음 씀씀이는 건주어 모자람이 없다. 더불어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함께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부족할 게 더 무얼까. 과잉된 포장만으로 사랑을 선택하지 말 것, 상대의 속내를 오래도록 들여다본 뒤 그 포장됨이 어울리는가를 다시 판단해 볼 것. 그가 밝히는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행동도 느리고 말투도 느려 작업도 느리다”며 다시 얼굴을 붉히는데, 대저 책과 더불어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느긋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법칙을 그는 모르고 있는 듯했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